

고등학교 「세계지리」 교과서의 유럽지리 서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산업 및 경제지리 내용을 중심으로

이민환* · 류나영**

A Critical Review on the Description of Geography of Europe in High School “World Geography” Textbooks: Focusing on the Contents of Industrial and Economic Geography

Minhwan Lee* · Nayoung Ryu**

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세계지리」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유럽지리 관련 내용 요소를 개관하고, 이 중 지역지리적 관점에서 서술된 “VI. 유럽과 북부 아메리카” 단원의 내용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구체적 고찰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지리 변화과정이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서술되었고 둘째, 국지적 사실 암기를 유도하는 내용이 많으며 셋째, 서유럽 사례 중심으로 서술되고 동유럽이 거의 배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지적인 사항들은 세계지리를 학습하는 학생들에게 오개념을 심어줄 우려가 있어 주의가 요구되며, 이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해 유럽지리의 내용을 보다 논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이러한 방향은 학생들의 유럽지리 이해를 보다 용이하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주요어 : 지리교육과정, 세계지리, 지역지리, 유럽지리, 산업구조변화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introduce the contents about geography of Europe in high school “World Geography” textbooks based on the 2015 geography education curriculum, and to critically review the chapter VI: Europe and North America, of which the focus is on regional geography.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oversimplification in describing change of industrial geography in Europe; second, excessive memorization in detail; third, overgeneralizing Western Europe and excluding Eastern Europe. These issues require attention because there is a concern that misconceptions may be instilled in students who learn world geography.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that can make the description of geography of Europe more logical is suggested. This contributes to making it easier for students to understand geography of Europe.

Key Words : Geography education curriculum, World geography, Regional geography, Geography of Europe, Change of industrial structure

I. 서론

지역지리 연구에서 유럽은 매우 흥미로운 지역 중 하

이다.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공존하며,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모두 공간적 연구의 대상으로서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유럽 지역을 사례로 하는 다양한 주제에 기반한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학사과정(Undergraduate Student, Dept. of Geography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minhwanlee@snu.ac.kr)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 청주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강사(Lecturer, Dept. of Geography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Dep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Che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nayoung.ryu@gmail.com)

지리학적 연구 성과들은 그간 꾸준히 누적되어 왔으며 (Butlin and Dodgshon, 1998; Murphy, 2005; Unwin, 2017), 타 지역에 비해 다양한 연구 및 통계 데이터가 풍부하게 축적되어 있다는 점에서 유럽은 다양한 스케일의 연구가 가능한 매력적인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유럽지리가 초·중·고등학교 지리교육과정에서 주요 학습 내용으로 구성되고, 특히 고등학교 「세계지리」 교과서에서는 상당한 비중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배경이자 원동력이 된다. 따라서, 고등학교 「세계지리」 교과서 속 유럽지리의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어떠한 특성을 지니는지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연구 주제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지리교육과정에 따라 저술된 초·중·고등학교의 지리 영역 교과서 내용 분석 및 내용 구성과 관련된 연구는 매우 다양한 주제와 방법론을 기반으로 그 성과가 축적되었다. 최근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해외 주요국의 교과서 내용을 비교 분석하거나(김다원, 2019; 이형상, 2021), 다중스케일 접근 방법의 적용을 통해 우리나라와 세계 각 지역에 대한 균형잡힌 이해를 도모하였다(이동민·최재영, 2015; 이동민 등, 2016). 김다원(2018)은 지역 학습의 구성방식과 그 변화 양상을 제1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시계열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바람직한 지역 학습의 구성 방향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중학교의 경우, 한·일 교육과정과 교과서 지리 영역의 도시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고(장양이, 2021), 교과서 내 ‘학습활동’이 조사 및 해석 능력을 함양하는데 중요함을 규명하였다(손명철, 2014). 고등학교의 경우, 「한국지리」 교과서의 도시 단원 내용 분석(이세희, 2019)과 지역지리 단원에 대한 비판적 검토(손명철, 2020)가 수행되었다. 「세계지리」 교과서 분석 관련 연구는 특정 사례 또는 주제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주목할 만하다. 카스피해 자원 분쟁의 지리교육적 활용(김한승·최재영, 2017), 난민에 관한 교육내용 구성의 특징 분석(김정숙·박선미, 2022) 및 세계지리 교과서에서 다루는 논쟁문제의 주제, 범위 그리고 학습목적과 전략을 분석(함경림, 2021)한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지리교육과정 관련 선행연구는 교육과정 검토와 교과서 내용 및 내용 구성 변화 분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주로 국가간 비교 및 검정교과서간 비교 분석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확

인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유럽지리 내용에 대한 분석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교육부, 2018)에 바탕을 두고 저술된 고등학교 「세계지리」 교과서에서 유럽지리 관련 내용 체계와 내용 요소를 개관하고, 특히 지역지리 관점에서 서술된 “VI. 유럽과 북부 아메리카”의 내용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자들은 현재 고등학교 「세계지리」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유럽지리 내용이 논리 구조가 빈약한 지점을 일부 관찰할 수 있으며, 학생들에게 오개념을 심어줄 우려가 있는 지점이 발견되고, 학생들에게 공간 현상의 원인과 결과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기 보다는 특정 공간 요소의 위치를 암기시키는데 그칠 뿐만 아니라, 다루는 지역 역시 일부 즉, 서유럽에 치우치는 등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두고 있다. 이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해 현재 고등학교 「세계지리」 교과서 상의 유럽지리 내용을 보다 논리적이고 학생들이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구성할 수 있는 보완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학생들에게 유럽지리 이해를 보다 증진시키는데 기여하는 동시에, 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세계지리의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연구 배경과 목적이 제시된 I장에 이어서, II장에서는 현행 교육과정에 기반한 「세계지리」 교과서 내에서 유럽지리 관련 내용 요소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개관한다. III장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지역지리 관점에서 서술된 “유럽과 북부 아메리카”의 내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수행한다. 마지막 IV장에서는 고찰 결과를 요약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을 제언으로 제시한다.

II. 현행 세계지리 교육과정의 유럽지리 내용 요소

우선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세계지리」 교과서 내에서 다루고 있는 유럽지리와 관련된 내용 체계와 요소는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현행 세계지리 교육과정에서는 유럽지리와 관련된 내용 요소들이 여러 영역(대단원)에 걸쳐 나타나는 특성을 보이는데, 계통지리 서술 방식과 지역지리 서술 방식이 혼합된 현 교육과정의 설계 방향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교

육부, 2018). 본 연구에서는 특히 지역지리적 관점에서 서술된 'VI 단원'의 내용 요소들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현행 세계지리 교육과정에서 유럽지리 관련 내용은 "VI. 유럽과 북부 아메리카"에서 주로 다루고 있다. 유럽과 북부 아메리카가 비슷한

경제 수준과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어 두 지역을 함께 묶어 하나의 대단원으로 구성되었다. 단원 내용은 주로 유럽과 북부 아메리카의 지리적 특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비교하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유럽지리 자체에 관한 내용도 상당 부분 제시되어 있다. 유럽지리와 관련된 내용은 크게 다음 세 가지의 소주제로 분류된다.

표 1. 현행 세계지리 교육과정의 유럽지리 관련 내용 요소

영역(대단원명)	제시 방법	내용 요소
I. 세계화와 지역 이해	계통/지역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의 권역 구분: 다양한 기준 - 세계지리 교과서의 권역 구분 → 유럽과 북부 아메리카
II. 세계의 자연환경과 인간 생활	계통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의 기후 - 서유럽은 주로 서안해양성 기후, 북유럽/동유럽은 주로 냉대습윤 기후, 남유럽은 주로 지중해성 기후, 러시아 동부는 주로 냉대 겨울 건조 기후 ■ 유럽의 지형 - 대지형: 알프스 산맥, 발트 순상지, 스칸디나비아 산맥, 우랄 산맥, 유럽 내 알프스-히말라야 조산대의 분포 - 특수 지형: 노르웨이 피오르, 북해 갯벌, 슬로베니아 포스토이나, 아이슬란드 간헐천, 에스파냐 리아스 해안 등
III. 세계의 인문환경과 인문 경관	계통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의 종교 - 주요 종교는 그리스도교, 최근 이슬람교 인구 비중이 증가 - 그리스도교 종파 분포: 가톨릭, 개신교, 동방 정교와 각 종파의 종교 경관 특징 차이 ■ 유럽의 인구와 도시 - 유럽 대륙의 인구는 7억(러시아 포함) - 전세계에서 비교적 산업화가 이르고 노령화가 진행된 지역 ■ 유럽의 자원 - 식량 자원은 주로 밀, 밀 생산과 수출에서 주요한 역할, 가축 자원은 주로 돼지 사육 - 화석 에너지 자원은 주로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와 주변국에서 수입되는 석유에 의존 -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원자력과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음. 유럽 각 국가별 신재생 에너지 특징
VI. 유럽과 북부 아메리카	지역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의 산업 - 전통 공업 지역 → 임해(하운/해운 교통 발달) 산업 지역 → 첨단 산업 지역으로 변화 - 전통 공업 지역: 독일 루르, 자르, 작센; 영국 랭커셔, 요크셔; 프랑스 로렌 - 임해 산업 지역: 영국 카디프, 미들즈브러; 프랑스 뉝케르크, 르아브르; 네덜란드 로테르담 - 첨단 클러스터 산업 지역: 영국 케임브리지 사이언스 파크, 프랑스 소피아 앙티폴리스, 스웨덴 시스타 사이언스 파크, 핀란드 오울루 테크노폴리스, 이탈리아 제3이탈리아 ■ 유럽과 북부 아메리카의 도시 구조 비교 - 유럽의 도시들은 오랜 역사, 전통 경관 보존. 도심의 구시가지가 유지되어 주로 도심에 고소득층 거주, 도심 주변 지역에 저소득층 이민자 거주 지역, 도시 외곽 지역에 대규모 주거 지역 또는 신시가지(파리 라데팡스, 런던 카나리워프) → 도심과 주변 지역 간 건물 높이 차이가 작은 유럽 도시 - 북부 아메리카의 도시들은 짧은 역사, 도심에 주로 고층 업무용 건물들 분포, 도심 주변에 저소득층 주거 지역, 도시 외곽에 고소득층 고급 주택 분포 → 도심과 주변 지역 간 건물 높이 차이가 큰 북부 아메리카 도시 → 두 지역 모두 교외화와 인종과 민족에 따른 거주지 분리 현상이 도시에서 나타남 - 유럽의 메갈로폴리스: 영국(런던-리버풀), 네덜란드(란트슈타트) - 유럽의 세계 도시: 주로 런던, 파리를 중심으로 서술 ■ 유럽의 통합(EU)과 분리 운동 - 영국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문화/역사적 차이가 원인 - 이탈리아 파다니아: 소득 격차가 원인(북부)남부) - 에스파냐 카탈루냐, 바스크; 벨기에 플랑드르: 경제적 격차와 언어의 차이가 원인
VII. 평화와 공존의 세계	계통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 세계화와 경제 블록의 형성 → 유럽 연합 - 가입국 27개국, 대략적인 역사와 설립 배경 -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지위(역내, 역외 무역액, 역내 총생산) - 유럽 연합 본부의 위치, 유럽 연합의 특징과 과제, 생겐 조약

출처: 교육부(2018), 박철웅 등(2019), 신정엽 등(2019), 최병천 등(2019), 황병삼 등(2019)에서 발췌 및 재구성.

첫째는 산업 부분으로, 유럽의 주요 공업 지역이 어디에 형성되고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과정을 다룬다. 산업 혁명 이후 산업화 초기에는 석탄 및 철광석 등 자원 산지를 중심으로 공업 지역이 형성되었다. 이후 자원의 고갈과 시설의 노후화, 값싼 해외 자원의 수입 증가로 인해 임해 지역 및 내륙 수로 교통 발달 지역으로 공업의 중심이 이동하였고, 최근에는 첨단 산업 지역이 성장하여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둘째는 도시 부분으로, 유럽과 북부 아메리카의 세계 도시 발달 과정과 현대 도시의 내부 구조 특성을 비교한다. 도시의 역사 차이에 따른 도시의 형태와 거주 계층, 도심과 주변 지역의 건물 높이 차, 도로망의 구조 등의 차이점과 교외화, 거주지 분리 현상 등의 공통점이 함께 언급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통합과 분리 운동 부분으로, 유럽 연합(EU)의 형성 배경 및 최근 유럽에서 발생하고 있는 분리 독립을 추구하는 지역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한다. 그리고 분리주의의 원인을 주로 경제적 격차나 언어, 문화의 차이로 설명한다.

이렇게 구성된 현행 세계지리 교육과정의 유럽지리 관련 내용 요소는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세밀하게 뜯어보면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낮은 부분들이 목격된다. 다음 장에서는 이에 대한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최근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세계지리」 교과서의 유럽지리 서술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III. 유럽지리 내용 서술에 대한 비판적 고찰

1. 산업 구조 변화 과정의 서술 논리 취약

상술한 바와 같이, 「세계지리」 교과서에서는 유럽의 주요 공업 지역이 산업 혁명 이후 석탄, 철광석 등 원료 산지를 중심으로 발달하였으며, 이후 자원의 고갈과 노후화로 인해 원료 수입과 제품 수출에 유리한 임해 지역, 즉 해운과 하운 교통 발달 지역 중심으로 공업의 입지가 변화하였고, 최근에는 첨단 산업 클러스터의 성장이 대도시 주변을 중심으로 발달하고 있음을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원료 산지 중심 → 임해(해운/하운 교통 발달) 지역 중심 → 대도시 주변 첨단 산업 중심과 같이 3단계의 형태로 유럽의 산업지리를 설명하기 위해

서는 보다 촘촘하게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서술될 필요가 있다.

1) 시·공간적 스케일을 모두 고려한 산업 구조 변화 설명 필요

유럽의 산업 구조 변화는 공간적 관점 뿐만 아니라 산업 발달의 역사를 시간적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보다 유의미하게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계지리」 교과서에서 대표적인 전통 산업 지역으로 제시되는 독일 루르 지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석탄 자원 생산의 중심지가 되면서 독일(서독)의 전후 경제 성장, 즉, '라인강의 기적'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현재 유럽 연합(EU)의 전신이 되는 유럽 석탄철강공동체(ECSC)가 1951년에 결성되면서 유럽의 석탄 산업은 최전성기를 맞았다. 그러나 1957년 ECSC가 세계의 자유 무역화에 의해 석탄가 자유화를 결정하였고, 유럽은 갑자기 세계 석탄가 자유경쟁에 던져지게 되었다. 이에 1960년대부터 러시아, 호주, 콜롬비아 등 석탄 저가 생산국이 등장하면서 가격 경쟁에서 밀리게 되었고, 이에 따라 유럽의 석탄산업과 전통 공업이 급격하게 쇠퇴하게 되었다. 1957년에서 2017년 사이 독일 루르 지역의 석탄 산업 고용자수는 600,000명에서 4,500명으로, 자르 지역의 석탄 산업 고용자수는 65,000명에서 140명 미만으로 감소하였다(Oei *et al.*, 2020). 그림 1은 1950년대 이후 2018년에 이르기까지 독일의 루르와 자르 지역을 비롯해 유럽의 석탄산업이 쇠퇴하는 배경이 되는 주요 사건들—석탄위기의 시작(1958), 국내산보다 가격이 싼 석탄 수입 시작(1964), 1차 석유위기(1973), 석탄생산 종료(2018) 등—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지리」 교과서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1960년대-2000년대까지 이어지는 유럽의 산업 구조 변화의 흐름을 시간 스케일에서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주로 공간 스케일에서만 제시하였다. 「세계지리」 교과서에 따라서는 각 단계별 공업 지역의 형성 및 발달 시기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거나 '최근'과 같은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는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표 2). 특히, 박철웅 등(2019)과 황병삼 등(2019)은 임해 지역, 즉 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 공업 입지가 변화하는 시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모호한 서술로 인한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학생들이 유럽의 산업 구조 변화가 가지는 시간

스케일을 자의적으로 왜곡할 우려가 있다. 어떤 학생들은 전통 공업의 연대를 18세기 산업혁명 시기로 한정시키고, 해운/하운 교통 지역의 발달을 19세기로 그 시기를 과도하게 과거로 인식할 수 있다. 반면 어떤 학생들은 이 모든 변화가 최근 21세기 동안에 일어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에게 유럽의 공업 지역 형성과 변화에 대한 오개념을 심어주게 되어 결과적으로 공간적 이해에 대한 오류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시간 스케일의 모호한 제시는 전통 공업 시기에 서 임해 지역이나 내륙 수로 등 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 공업의 입지가 변화하는 시기에 대한 이해를 왜곡시킬 수 있다. 상술하였던, 시간 스케일을 과도하게 크게 인식하여 이러한 변화의 시기를 18세기로 이해하거나 시간 스케일을 과도하게 작게 인식하여 이 변화의 시기를

21세기로 잘못 이해하게 되면,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자원의 고갈과 시설의 노후화는 전통 공업이 쇠퇴하는 이유로 이해할 수 있으나, 석탄에서 석유로의 에너지원의 변화 및 원료 수입 및 제품 수출의 용이성 등은 입지 변화의 시기와 논리적으로 잘 맞지 않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2) 원료 산지 중심에서 교통 중심으로의 변화 과정 서술 제고

이것 역시 상술한 전통 공업 지역 → 해운/하운 교통 발달 지역의 변화를 서술하는 방식과 연관된다. 이 변화의 시기와 원인이 명확히 설명되지 못한 탓에, 학생들은 많은 오개념을 안고 유럽의 산업 구조를 이해하게 될 수 있다. 대표적인 오해가, 유럽의 전통 공업이 말 그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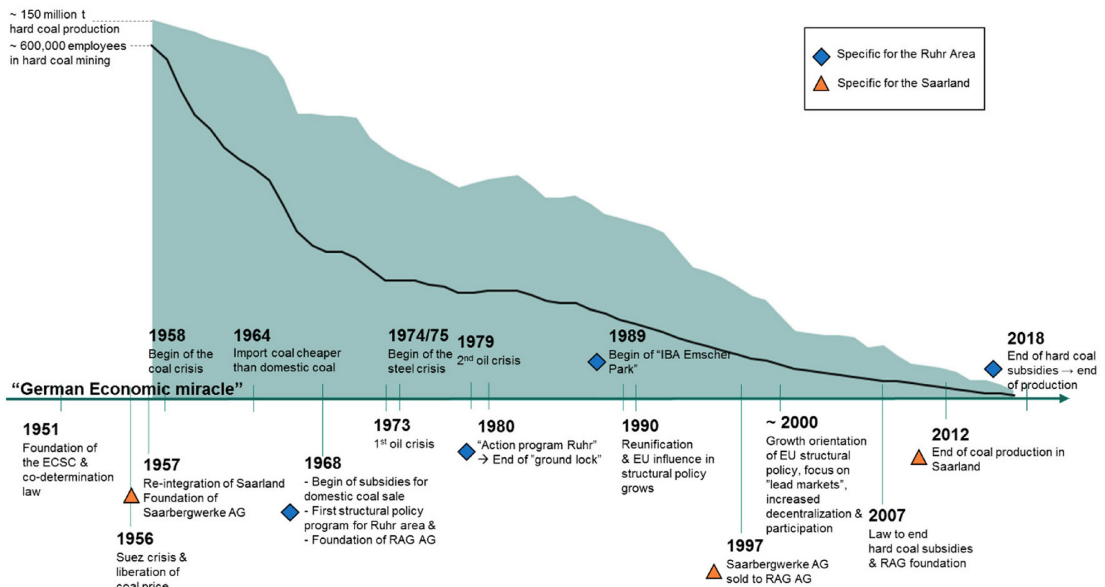


그림 1. 유럽의 석탄 산업 쇠퇴 타임라인

출처 : Oei et al. (2020:967).

표 2. 교과서별 유럽의 공업 지역의 형성 시기 서술 현황

교과서*	전통 공업 지역: 원료 산지	임해 공업 지역: 항구 또는 내륙 수로	첨단 산업 지역: 대도시 주변
박철웅 등(2019)	산업 혁명 이후	-	1960년대 이후
신정엽 등(2019)	산업 혁명 이후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최근
최병천 등(2019)	산업 혁명 이후	20세기 이후	1980년대 이후
황병삼 등(2019)	산업 혁명 이후	-	최근

*교과서 본문의 서술 내용을 기준으로 함.

해운/하운 교통 발달 지역으로 “이동”했다는 것이다(그림 2).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학생들은 유럽의 전통 공업이 쇠퇴하여 산업 중심지가 그 자리에서 힘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의 전통 공업이 쇠퇴하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그 자리를 기존 내륙에서 하안과 해안의 수운 교통이 유리한 지역으로 옮겼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보다 심도 있는 이해를 필요로 한다.

17~19세기 교통수단별 영국의 석탄 운송비용의 변화를 조사한 Allen(2023)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17세기부터 석탄을 바다와 강을 통해 운송하는 것이 도로로 운송하는 것보다 저렴하였다. 「세계지리」 교과서에서는 대표적인 해운/하운 교통 발달에 따른 성장 지역으로 영국의 카디프와 미들즈브러를 제시하는데(박철웅 등, 2019; 최병천 등, 2019; 황병삼 등, 2019), 이 지역에서는 1842년에 이미 바다, 강, 운하로 운송하는 것이 모두 도로보다 비용의 측면에서 유리하였다(Allen, 2023).

따라서, 1960년대에 석탄 공업 지역이 해운/하운 교통 발달 지역으로 이전해 갔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기상의 오류라고 볼 수 있다. 더 명확히 말하면, 1960년대에 석탄 공업 지역이 쇠퇴함에 따라 해운/하운 교통이 발달하였고, 그에 따라 해운/하운 교통 발달 지역이 새로운 공업 지역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며 훨씬 오랜 시기 이전부터 해운/하운 교통 발달 지역이 성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세계지리」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대표적인 해운/하운 교통 발달 지역 세 곳(로테르담, 뉘케르크, 미들즈브러)의 발달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세

도시의 위치는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50~1960년대에 걸쳐 유럽 외부로부터의 자원 수입이 증가하였고, 유럽 내의 운하 체계가 정비되면서 항구에 중공업 시설이 입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공업이 발달한 항구를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재편된 것을 「세계지리」 교과서에서는 “중심지가 이동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로테르담 항구는 1960년대 현대적인 항구인 유로포트가 건설된 이후 물류량이 급증하면서 1962년에는 세계 최대의 항구가 되었고, 뉘케르크 항구는 1958년에 항구를 재건축하고, 1960년에 뉘케르크-에스코트 운하가 뚫리면서 자르가 쇠퇴한 이후 철강 산업 중심지로 성장한 것이다. 미들즈브러 항구는 1965~1968년 북해 유전이 개발됨에 따라 대규모 석유 회사의 공정 시설이 입지하면서 발달하게 되었다.

이를 보면, 「세계지리」 교과서에서 전통 산업 지역이 해운/하운 교통 발달 지역으로 이동했다는 서술은 다소 어색한 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운을 통해 내륙으로부터 자원을 받아 가공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해운을 통해 수입된 자원을 가공하여 하운을 통해 내륙으로 운송하는 과정 속에서 이 지역이 발달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공업의 중심지가 이동한 것이 아니라, 전통 공업 지역과 해운/하운 교통 발달 지역이 서로 개별적으로 성장하다가 1960년대 이후 전통 공업 중심의 산업은 쇠퇴하고 해운/하운 교통 발달 지역이 변형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에 유럽이 전통 공업 지역이 산업에 필요한 자원을 충당하기 어려워지자 외부에서 자원을 수입하기 시작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두 지역의 운명이 달라진 것은 유럽 산업 구조의 변화가 핵심적으로 그 배경에 작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지 않아 그 논리적 연결고리가 끊겨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 공업 중심 지역에서 해운/하운 발달 지역으로 유럽 공업이 “이동”했다고 서술하여 학생들에게 오개념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전통 자원 중심의 산업이 쇠퇴하고 해운/하운 공업 지역이 성장한다고 보는 것은 1960년대이나, 이미 그 이전부터 해운/하운 공업 지역은 성장하고 있었다. 상술한 것처럼 「세계지리」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세 항구의 발달 역사를 예로 들 수 있다. 우선, 로테르담 항구는 1872년 니우웨 운하(신운하) 건설 때부터 운하 양안에 대륙 내부에서 생산되는 자원을 활용한 공단이 발달해 있던 것이, 루르의 성장으로 그 규모가 확장되었던 것에서 발전한 곳이다. 처음에는 대륙 내부에서 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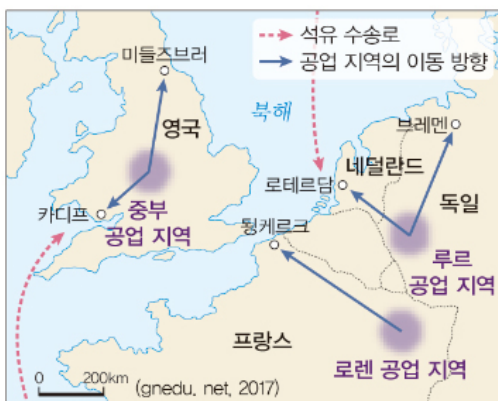


그림 2. 서부 유럽 공업 지역의 이동

출처 : 박철웅 등(2019:148).

하운 운송을 활용한 산업이 발달하였으므로 이를 활용하기 유리하도록 하구에서 먼 운하 안쪽에 항구와 공단이 입지해 있다가, 점차 대륙 내부에서 오는 자원보다 대륙 외부에서 오는 자원의 가공에 집중하게 되면서 점점 강과 운하의 하구 쪽으로 항구와 공단이 옮겨가게 된 것이다(그림 3). 따라서, 로테르담 항구는 유럽의 산업 구조 변화를 잘 보여주는 곳일 뿐만 아니라, 그 변화에 따라 항구의 공간 구조가 변화한 예시이다. 그런데 로테르담 항구가 1960년대부터 성장하기 시작한 지역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이전에 대륙 내부의 루르와 자르 지역과 연계하여 성장한 로테르담 항구의 실제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다. 요약하면, 기존에 유럽의 해운/하운 교통 발달 지역은 대륙 내부의 자르/루르/로렌과 같은 지역에서 운송되는 자원을 가공하여 외부로 수출하는 구조였는데, 1960년대부터 대륙 내부의 자원 고갈과 세계 자원 거래 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이 지역이 외부에서 수입한 자원을 가공하여 대륙 내부로 운송하는 산업 구조로 변화한 것으로, 그 기능 자체가 아니라 그 기능의 방향이

변화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딩케르크 항구의 경우 1842년 철도가 덩케르크와 연결되면서 1882년 항구가 건설되었고, 1898년에는 중공업의 상징과도 같은 조선소가 건설되었다. 20세기 초에는 덩케르크 항구에 대규모 공장 건설 붐이 일면서 양모 가공업과 모비주, 발랑시엔 등 대륙 내부의 프랑스 북부 지역 석탄 산지에서 오는 석탄을 가공하는 산업이 발전하게 되었다. 이 역시 해운/하운 교통 발달 지역의 산업 구조가 1960년대 이전까지는 산업의 방향이 대륙 내부의 자원을 가공하여 대륙 외부로 수출하는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들즈브러 항구 역시 1831년 석탄 항구가 개항하면서 1851년 제철 공장이 건설되었고, 1861년에 조선소가 건설되어 중공업이 발전하는 항구가 이미 되어있었다. 제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전쟁의 직접적인 피해를 받지 않은 영국의 미들즈브러 항구는 전쟁 특수로 번성하게 되었다. 반면, 로테르담과 덩케르크는 세계대전 당시 파괴되었고, 그 이후 재건되면서 그 기능의 방향이 변화하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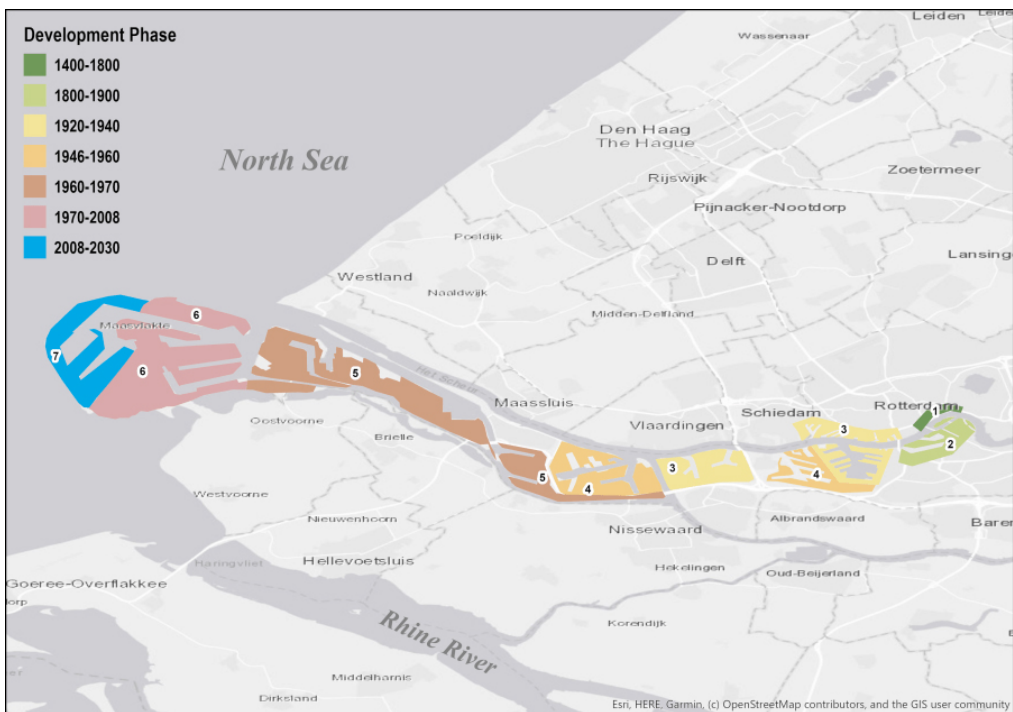


그림 3. 로테르담 항구의 발달 과정

출처 : Port Economics, Management and Policy, <https://porteconomicsmanagement.org/pemp/contents/part2/changing-geography-of-seaports/evolution-port-rotterdam/> (2024년 2월 22일 접속).

그러나 「세계지리」 교과서에서는 전통 공업 지역에서 해운/하운 교통 발달 지역으로 산업의 지리적 구조가 변화하게 되는 것을 기능의 방향이 아닌 기능 자체가 바뀐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 원래 자원 가공업은 대륙 내부의 전통 공업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가 그 기능이 1960년대에 해운/하운 교통 발달 지역으로 이전된 것처럼 서술되고 있고, 이것은 학생들의 오개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는 원래부터 해운/하운 교통 발달 지역은 대륙 내부에서 오는 자원을 가공하는 산업으로 번성하고 있었고, 세계대전 이후 기존 항구가 파괴되고 대륙 내부 전통 공업 지역에서 자원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산업의 방향이 대륙 내부의 자원을 가져와 가공하여 대륙 외부로 수출하는 것이 아닌 대륙 외부의 자원을 수입하고 가공하여 대륙 내부로 운송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다.

이러한 오개념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세계지리」 교과서들이 공통적으로 유럽 산업 구조의 발전 단계를 전통 자원 중심에서 해운/하운 교통 발달 지역 중심으로, 다시 최근에는 첨단 클러스터 중심으로 “이동”하는 3단계의 구성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전통 자원 공업과 해운/하운 교통 발달 지역은 산업 지역으로 같이 성장한 경향이 강하며, 해운/하운 교통 발달 지역은 그곳이 갑자기 교통지리적으로 유리한 지역이 되어서 발전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적환지로서 자원을 수입하고 완제품을 수출하는 그 방향이 바뀌면서 성장하게 된 것으로 이해하도록 구성될 필요가 있다.

3) 자연지리적 특성과 연계한 설명 필요

유럽지리의 산업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고찰할 사항은, 유럽의 산업이 해운/하운 교통과 함께 발전했다는 내용의 서술이 강수가 일정하고 강이 많은 유럽의 자연지리적 특성과 연계되어 제대로 설명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분석 대상 교과서 중 관련 내용이 언급된 교과서는 단 하나에 불과하였으며, 아래의 단 한 문장으로 표현되었다.

... “또한, 라인강, 다뉴브강 등 유럽의 하천은 계절별 유량 변동이 적어 공업 발달에 중요한 교통로 역할을 하였다.”
(최병천 등, 2019:149)

만약 유럽의 산업 발전에 해운/하운 교통이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 그 자연지리적 특성에

대한 설명이 결여된다면, 학생들은 왜 다른 대륙보다 유럽이 더욱 공업이 빠르게 성장했는지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서술이 나타나는 이유는 현행 세계지리 교육과정의 계통지리적 내용과 지역지리적 내용이 혼합된 구조를 취하고 있어, 전세계의 전반적인 자연지리적 특성은 이미 “II. 세계의 자연환경과 인간 생활”에서 다루어졌기 때문에 중복된 언급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가장 효과적인 학습 및 설명 방식의 측면에서 이 내용은 반드시 자연지리적 특성이 함께 설명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 공간 현상의 원인이 아닌 공간 요소의 암기 유도

「세계지리」 교과서의 유럽지리 서술에서 또다른 고찰 사항 중 하나는, 공간 현상의 원인을 학생들에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 요소를 일방적으로 암기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시로 첨단 클러스터 공업 지역에 관한 내용과 유럽의 분리주의와 관련된 내용을 들 수 있다.

먼저, 유럽의 첨단 클러스터 공업 지역에 대해 설명할 때에는 예시로 제시되는 케임브리지 사이언스 파크, 소피아 앙티폴리스, 시스타 사이언스 파크, 오울루 테크노폴리스, 제3이탈리아가 왜 그곳에 위치하고 있고, 왜 첨단 산업의 중심지가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보다는 그저 첨단 클러스터의 이름과 위치만 서로 맞추도록 유도하고 있다. 교과서 상에서 탐구활동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설명이 일부 제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효과적인 이해를 돕기에는 설명이 다소 추상적인 면이 있다.

지리학은 공간 요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암기”하는 학문이 아니라, 어느 공간 현상이, 즉 공간 요소가 어디에 “왜” 있는지를 “질문”하고 “탐구”하는 학문이다. 그러나 유럽의 첨단 산업 클러스터 서술처럼 위치만을 암기하게 하는 것은 지리가 그 스스로를 지루한 과목으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낳을 뿐만 아니라, 지리학적으로도, 교육학적으로도 의미 부여가 어려운 주입식 교육일 뿐이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첨단 산업 클러스터에서만 관찰되는 것이 아니라 유럽의 분리주의 운동에 대한 서술에서도 관찰된다. 「세계지리」 교과서에서는 유럽의 분리주의 운동이 일어나는 지역을 크게 6가지로 정리하여 소

개하고 있는데, 그 중 2개는 역사, 문화적인 차이, 1개는 경제적 격차, 3개는 경제적 격차와 언어적 차이를 이유로 분리주의 운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분리주의 운동의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지리 과목의 취지에 맞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분리주의 운동을 이해하는 핵심은, 그 이유가 '경제적 격차'나 '역사/문화적 차이'에 있다는 것을 암기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경제적 격차와 역사/문화적 차이가 왜 일어나는지를 이해하는 데 있다. 이탈리아 북부가 왜 남부보다 평균 소득이 높고, 카탈루냐와 바스크는 왜 에스파냐 타 지역보다 돈을 많이 벌고, 북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는 영국과 어떤 역사적, 문화적 차이를 갖고 있길래 분리 독립까지 원하는 것인가? 이 질문들은 세계지리를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당연히 가질 수 있고, 또 가져야 하는 질문이지만, 교과서에서 또는 수업 시간에 충분히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탓에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그저 의문점으로 남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것은 지리학이 강조하는, 적극적으로 사회 현상을 공간적으로 탐구하는 정신에도 맞지 않다. 벨기에 플랑드르 지역과 왈로니아 지역의 언어 차이를 학생들이 외우도록 하면서도, 그 언어 분포가 각 지역이 인접한 국가의 영향을 받는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 지리적인 이유를 알게 되면 지리 현상이 이해되고 학문적 호기심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언어가 다르다고 해서 분리 독립 운동을 하는 것처럼 묘사된 서술도 논리적으로 비약이 크다. 언어가 다르다고 분리 독립 운동을 한다면, 스위스는 공용어가 4개나 있는데 왜 이리 평화로운가? 분명 언어 차이가 발생하는 지역은 그 역사적인 이유와 경제적인 이유가 우선되어 있고, 언어 차이는 부차적인 문화적 차이의 하나로서 분리 독립 운동 지역이 가지는 차별적 특성으로 이해되어야 함에도, 「세계지리」 교과서에서는 마치 언어적 차이가 분리 독립의 이유인 것처럼 묘사하는, 논리적으로 매우 이상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3. 서유럽 중심의 지나친 일반화와 동유럽의 배제

마지막 고찰 내용은 도시 부분에서 관찰할 수 있다.

현행 세계지리 교육과정은 유럽의 도시 구조와 북아메리카의 도시 구조를 설명하면서, 유럽의 도시 구조를 극히 일부 서유럽 도시의 구조로 지나치게 일반화하고 있다. 유럽의 도시 구조를 설명하면서, 도시의 오래된 역사에 따라 도로망이 복잡하고, 도심에 전통적 건축물이 많이 남아 있어 그곳에 주로 고소득층이 거주하고, 최근에는 외곽 지역에 신시가지지를 건설하고 있다는 내용 위주로 유럽의 도시를 설명한다. 그러나 이것은 유럽의 도시들 중에서도 런던과 파리 두 도시에만 해당되는 것이다. 유럽 도시의 신시가지로 라데팡스와 카나리워프 두 개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사실 상당수의 유럽 도시들은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오랜 역사를 간직한 도심이 파괴되었고, 오늘날 신식 건물들로 대체된 경우가 많다. 런던과 파리는 운이 좋게 세계대전의 총탄을 피하게 되면서 도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지 군화에 직접적으로 밟힌 도시들은 오늘날 「세계지리」 교과서에 서술되는 전통적인 유럽의 도시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극히 일부의 사례, 런던과 파리의 사례만을 중심으로 유럽의 도시 구조를 일반화시키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로 볼 수도 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유럽의 도시 구조의 사례로 다른 유럽의 여러 도시들을 추가하거나, 유럽의 전통적인 도시 구조의 일반화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유럽지리 서술 전반에 걸친 문제로, 전체적으로 현행 세계지리 교육과정에서는 유럽지리를 서유럽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고 동유럽과 러시아는 교육과정의 대부분 내용에서 거의 배제되어 있다. 동유럽은 최근 다뉴브 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산업 발전과 유럽 연합 가입, 민주화 등으로 새로이 개발 도상국으로써 부상하고 있어 서유럽 지역과 그 특성이 충분히 비교되어 소개될 수 있는 지역임에도, 교육과정 상에서 철저히 배척되어 버렸다. 「세계지리」 교과서 중 신정엽 등(2019)에서 유일하게 동유럽에 대한 공업 발달 언급을 단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폴란드, 체코 등 동부 유럽 국가에서는 서부 유럽 국가보다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공업이 성장하고 있다." (신정엽 등, 2019:154)

이것은 세계 곳곳에 대한 학생들의 견문을 넓히는 선봉장으로서 지리 교과가 가지고 있는 역할을 약화시키

고, 학생들의 세계관을 편협하게 할 수 있는 요소여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동유럽을 포함하여 유럽 전체를 전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유럽지리 내용 서술이 요구된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세계지리」 교과서의 유럽지리 서술 내용에 초점을 두고 해당 내용에 대하여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첫 번째는 산업지리 서술에서의 논리성 부족, 두 번째는 분리주의 독립 운동과 첨단 클러스터 서술에서의 지나친 암기 유도, 세 번째는 서유럽 중심의 지나친 일반화와 동유럽의 배제이다. 이 세 가지 비판점은 현재 세계지리 교육과정의 유럽지리 서술의 핵심적인 문제점으로, 학생들의 오개념을 유도하고 학생들에게 왜곡된 지리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따라서 다음의 제언을 바탕으로 유럽지리 서술 내용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산업지리 서술에서 전통 공업 지역 → 임해 지역 → 첨단 산업 지역으로 유럽의 산업이 입지를 이동하며 순차적으로 발달했다고 하는 3단계 구성 방식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지리적 이동의 개념으로 이 변화를 설명할 것이 아니라, 시간에 흐르면서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전통 자원 공업과 해운/하운 교통 발달 지역은 산업 지역으로 같이 성장한 경향이 강하며, 해운/하운 교통 발달 지역은 그곳이 갑자기 교통지리적으로 유리한 지역이 되어서 발전한 것이 아니라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자원을 수입하고 완제품을 수출하는 방향으로 역할이 변화, 확대되면서 빠르게 성장하게 된 것으로 이해하도록 구성될 필요가 있다.

둘째, 첨단 클러스터 산업 지역과 유럽 분리주의 운동에 대한 서술을 강화하여 지리적 요소의 암기보다는 그 현상의 이유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유럽지리를 공부하면서 가지게 되는 의문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내용들을 교육과정에 반영해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지나친 서유럽 중심의 도시 구조 일반화를 피하기 위하여 유럽의 도시 구조를 설명할 때 런던, 파리 두 도시 뿐만 아니라 다양한 도시들을 소개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현재 서유럽 중심에 치우쳐 있는 교육과정 내용

을 개선하여 동유럽의 산업, 도시, 갈등도 복합적으로 다루어 학생들이 유럽을 서유럽에 국한시켜 이해하지 않고 유럽이라는 대륙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동유럽과 서유럽의 산업 발전 시기 차이에 따른 경제적 특성의 차이를 비교한다면 학생들에게서 더욱 의미 있는 지리적 통찰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들은 지리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하여 많은 분들이 연구하고 고민하는 노고를 쏟고 있음을 당연히 알고 있고, 교육과정의 구조와 분량상, 교육과정을 수립할 때 어느 정도 타협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물론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타협을 하면서도, '지리'라는 과목 자체의 본질과 우리가 이 과목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목적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 본질과 목적이 '지리'가 초·중·고등학교에 하나의 과목으로 자리잡은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고등학교 「세계지리」 교과서 내 유럽지리 서술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해 학생들이 유럽 지역을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학습하고 심도있게 이해하도록 기여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유럽의 산업지리 서술의 논리적 취약성 지적을 제외한 나머지 고찰 사항은 그 깊이와 논거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한계를 지닌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들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여 심도 있게 논리성을 확보한 비판적 고찰 결과를 내놓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교육부, 2018,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 [별책 7].
- 김다원, 2018, “초등학교 지리교육과정에서 지역학습 구성방식과 내용구성 변화 분석” 한국지리학회지, 7(3), 261-274.
- 김다원, 2019, “학습자 주도 탐구형 초등 지리 교과서 내용구성 논의: 영국·미국 초등 지리 영역 교과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리학회지, 8(2), 109-120.
- 김정숙·박선미, 2022, “고등학교 ‘세계지리’ 교과서의 난민 내용 분석”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30(4), 47-63.
- 김한승·최재영, 2017, “지리교육에서 카스피 해 자원 분쟁 활용에 대한 고찰” 한국지리학회지, 6(2), 101-112.

- 박철웅·조성호·강은희·이강준·홍철희·박병철·김지현·백승진·최재희 2019, 「고등학교 세계지리, 서울: (주)미래엔
- 손명철 2014, “중학교 사회교과서의 학습활동 분석과 재구성: 현행 중학교 「사회 ①」 교과서 지리영역을 중심으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2(3), 61-70.
- 손명철 2020, “고등학교 한국지리 과목 지역지리 단원에 대한 비판적 검토: 2015 개정 교육과정과 3종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8(3), 15-26.
- 신정엽·이정식·이경희·양희경·김봉수·유상철·박재현·박천영·박철진 2019, 「고등학교 세계지리, 서울: 천재교육
- 이동민·권은주·최재영, 2016, “초등사회과 지리영역에서 도시 관련 내용에 대한 다중스케일적 수업 적용 방안 모색” 한국지리학회지, 5(3), 263-273.
- 이동민·최재영, 2015, “다중스케일적 접근의 지리교육적 의의와 가능성: 초등사회과 세계지리 영역에서의 지역 인식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3(2), 1-17.
- 이세희, 2019,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의 도시 단원 내용 분석: Romey 기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형상, 2021, “지식 중심의 국가교육과정에 근거한 영국 초등학교 지리교과서의 내용 분석” 한국지리학회지, 10(1), 37-50.
- 장양이, 2021, “한·일 중학교 사회과 지리 영역의 도시 내용 비교 분석”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4(2), 189-202.
- 최병천·유성중·강성열·김덕일·우연섭·이우평·김시구·이훈정·엄주환·남길수·김차곤·이화영·이두현·강문철·윤정현·김진형·방완석, 2019, 「고등학교 세계지리」, 서울: (주)비상교육.
- 함경림, 2021, “세계지리 교과서에서 논쟁문제를 다루는 방식: 주제, 쟁점의 범위, 학습목적과 전략을 중심으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9(3), 23-37.
- 황병삼·천종호·이준구·이해창·천재호·강재호, 2019, 「고등학교 세계지리, 서울: (주)금성출판사.
- Allen, R.C., 2023, The transportation revolution and the english coal industry, 1695-1842: A geographical approach, *The Journal of Economic History*, 83(4), 1175-1220.
- Butlin, R.A. and Dodgshon, R.A., eds., 1998, *An Historical Geography of Europ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urphy, A.B., 2005, The changing geography of Europeaness, *Geopolitics*, 10(3), 586-591.
- Oei, P.-Y., Brauers, H., and Herpich, P., 2020, Lessons from Germany's hard coal mining phase-out: Policies and transition from 1950 to 2018, *Climate Policy*, 20(8), 963-979.
- Unwin, T., ed., 2017, *A European Geograph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Port Economics, Management and Policy, <https://portecomonomicsmanagement.org/pemp/contents/part2/changing-geography-of-seaports/evolution-port-rotterdam/> (2024년 2월 22일 접속).
- 교신 : 류나영,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이메일: nayoung.ryu@gmail.com)
- Correspondence: Nayoung Ryu,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1 Gwanak-ro, Gwanak-gu, Seoul, 08826, South Korea (Email: nayoung.ryu@gmail.com)
- 투고접수일: 2024년 2월 24일
심사완료일: 2024년 3월 19일
게재확정일: 2024년 3월 25일